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가 벌레에 관해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벌레들 중에 항상 앞의 날벌레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굶어 죽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향과 목표도 없이 무턱대고 남을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남이 아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흉내 내고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껌데기의 삶, 허탈한 삶만이 남게 됩니다. 누구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때론 작심삼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갖지 못하면 삶의 의미와 활력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생기가 있어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다른 이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선교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교활동의 출사표를 던지시며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이사 61,1-2)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의식,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구원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모범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저찌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마태 17,20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고유하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환히 드러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모든 것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서명엽 사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공지사항

- 2013 년 사목위원 투표 안내
 - 투표 일시: 2월 2일 미사 후 (간단한 후보 소개 직후 투표)
 - 후보: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신자를 대상 (투표 용지 확인)
 - 투표 용지에 총 5명의 이름에 표시
 - 총 9명의 사목위원을 다득표 순으로 선출 (전례 담당 사목위원 자체 선출)
 - 3월 부터 새 사목회 임기 시작

우리 공동체 소식

<축하해주세요>

김선우/강자영 가족 딸 김세린의 100 일 (1월 23일)

김태진/김예중 가족 아들 김동욱의 100 일 (1월 25일)

<남성교우 기도모임>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꾸려질 계획이며, 첫 모임은 오는 **2월8일(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새해를 맞아 우리 공동체의 교적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적기록이 업데이트 되면, 매디슨 공동체를 다녀가시는 교우분들의 발자취를 공동체 기록에 남길 수 있고, 또 다른 공동체로 이주하실 때 교적 관련 서류 (전출 교적, 영세/전진 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MS Word file)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난 3년안에 교적 파일을 작성하신 가정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교적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적 정리와 관련하여 제안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홍진국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에서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악기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첼로, 관악기 등등)를 연주하실 수 있는 교우분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특별히 피아노 반주자를 "매우 정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현재 반주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한분이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매주 미사 한시간 전에 모여서 (4:00 - 4:55) 같이 연습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r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